

# 1500년 역사의 향기 말하다 “본격적 도심포교 나선다”

## 19~20일, 고창 선운사 제2회 선운문화제 개최 광덕사 대웅전 낙성 및 본존불 점안법회

꽃무릇이 한창인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제2회 선운문화제가 성료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19~20일 '선운사 1500년, 그 역사의 향기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2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 문화제는 19일 보은염 이운 행사로 시작했다.

보은염 이운행사는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선사가 생계가 어렵던 도솔산 인근 주민에게 소금과 한지 만드는 법, 솥 굽는 법 등을 가르친 은혜로 마을사람들이 검단 선사를 기려 1500년 동안 불 기를마다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한 데서 유래했다. 가을 산사의 밤을 선운로 수놓은 산사음악회는 '선운사의 사계'를 주제로 열렸다. 3000여 대중이 운집한 산사음악회에서는 봄의 동백꽃과 여름의 녹차와 계곡, 가을의 꽃무릇,



9월 20일 선운사에서 열린 '제1회 선운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 모습.

겨울의 설경이 선운로 장엄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대중가수 이선희, 소리새, 김유성의 공연과 배우 오정혜의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20일에는 '제1회 선운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가 열렸다. 경연대회에는 23개팀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청소년들의 장기를 유감없이 펼쳤으며 B-BOY 세계대회 챔피언 T.I.P 공연 등은 1000여 청소년들을 열광케 했다.

만세무에서는 <부풍향차보>에 소

개된 전통차 시음과 동화 스님의 '한지로 피운 연화세계' 주제로 연꽃 문양과 달마대사 그림이 들어간 화초장, 한지등, 수납장 등 당장 일상생활에 사용이 가능한 작품들이 소개됐다.

또, 이날 한지공예전을 통해 얻어진 판매 수익금은 광주전남불교 환경연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석전영호 대종사의 유묵전이 열려 각종 글씨와 서책과 친필편지 등이 전시됐다. 사천왕문 앞에서는 고창지역의 유기농산물과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고창우수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한편, 근대 한국불교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석전영호(映湖, 1870~1948) 대종사의 열반60주기를 맞아 '석전영호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도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남구지역 도심포교를 담당할 새로운 포교당이 세워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덕사(주지 우진)는 9월 22일 대웅전 낙성 및 본존불 점안법회를 열고 30여년간의 이전 불사를 회향하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섰다.

행사에는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지장 스님(증심사 주지)을 비롯해 조영표 광주남구의회 의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에서 "도심 속에 큰 기림을 세운 대중에 감사하다"며 "진정한 불사는 마음의 근본지리를 찾는 것이며, 수행자들은 그 과정에 자신을 이끌어줄 진정한 참 스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석가모니부처님은 우리에게 오신 큰 스승으로, 광덕사가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수행하는 좋은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우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심 속에서 포교와 수행을 하는 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광덕사의 역할에 대해서 "광주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광덕사 또한 불교문화와 체육을 접목하는 사찰로 발전해 다양한 신



9월 22일 광주 광덕사 대웅전 낙성법회에서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덕사는 이날 대웅전 낙성법회를 시작으로 기초교리와 초기경전 등을 배우는 불교학당, 불화 등 불교문화 강좌, 태극권, 요가, 명상 등 일반인들에게 큰 호응이 있는 체육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한편, 광덕사는 사찰건립이 드문 광주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지역으로 각광받는 진월동에 위치한다. 인근에 광주대, 송원대 등 많은 학교들이 있어 청소년 포교의 최적지로 평가 받는다. 광덕사는 대지 1200평 위에 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과 전통한옥 구조의 대웅전을 갖는다. 건평 600평의 현대식 건물에는 설법전, 요사채, 종무소, 다실, 식당이 있으며 대웅전에는 이날 점안된 마애불이 봉안됐다. 또, 대웅전은 진월동에 위치한 옛 광덕사의 건물을 해체해 이전·복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추억의 템플스테이 개최

### 10월 10~11일, 다양한 행사 및 산사음악회 열려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던 1000여 대중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0월 10~11일 '추억의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제3회를 맞은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전국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한 김제 지평선축제와 연계돼 역대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자 중 희망자들이 다시 모여 아름다운 산사의 추억을 되새기게 된다. 행사에는 풍물장터, 템플스테이 사진전, 전통 등 전시, 탁본 체험전과 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의 산사토크 '앉아봐라 꽃밭이다'와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무신 스님의 특별법문 '당신은 무엇인가'가 진행된다.

산사음악회도 열린다. 산사음악회에는 조상훈과 등남풍의 비나리 공연, 이소라의 판소리 공연, 유미경의 재즈 피아노 연주, 이창선의 퓨전국악, 전북도내 비보이팀 소울원더스가 공연된다.

일감 스님은 "추억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던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씩 모여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바쁘게 살았던 일상에서 조금만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면 주변에 새롭고 행복한 것이 가득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교전통의식 강좌

### 전통불교영산회 개최

광주전남지역의 영산작법 시연단체인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해평)는 9월 20~26일 광주 율곡사에서 불교전통의식 강좌를 개최했다.

행사는 30여 스님이 동참해 매일 8시간씩 초·중급별로 일반법회 상용의식, 천도의식, 영산작법 의식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해평 스님은 "스님들이 불교의 전통의식을 배워 각 사찰과 포교현장에서 전통의식에 맞추어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불교의식은 하나의 수행방법이며, 포교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가한 선화 스님(서울 통영사)은 "강의에 임하는 강사스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어 고맙다. 평소 의식을 진행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배워간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곱단지' 독거노인 돕는다

### 성호 스님, 25일 노인복지센터 200명분 전달

천연목욕용품 '곱단지'로 널리 알려진 성호 스님(곡성 무각사 주지)이 9월 25일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에 목욕용품 200명분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대해노인복지센터장 무진 스님에게 후원품을 전달하는 성호 스님(의욕).

한가위를 맞아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전달된 목욕용품은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재료로 제조돼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서 성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홀로 기거하는 어르신

이 피부질환이 있고, 생활환경의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게 됐다"며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는 이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은(報恩)의 마음으로 편안한 노후를 돌봐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해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 노인일자리 사업(학교교통정리, 아픈 노인 돌보기), 집 청소(방문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우리지역 부루니존자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고 고정관 행정실장

## “청년불교 활발해야 지역신행 활기”

끝이 보이지 않는 김제 들녘이 황금빛 옷으로 갈아입을 즈음 모악산 아래 자리잡은 동국대 사대부속 금산중·고등학교 자비동산에서 고정관 행정실장을 만났다.

고정관 실장은 청년시절, 누가 불교에 귀의를 권유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 음속에서 끌리는 무언가를 따라 금산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금산사 청년회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인 청년회 활동을 시작했다. 고실장은 신행활동의 대부분을 청년회에서 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년회활동에 모든 것을 쏟았다. 전북불교청년회가 호남지역 제일의 신행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고정관 실장이 큰 역할을 했다. 1995~1998년까지 제7·8대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을 역임한 고정관 실장은 4년간의 재임기간동안 활동이 부진하거나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남원, 장수, 부안 등 전북 각 지역의 지회를 활성화시켰다. 지역별 조직을 재편하고 활성화를 위해 휴일이면 각 지역 청년회를 방문해 활동을 독려하고 침체된 지역에는 타 지역 지회활동의 노하우를 전수해 청년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런 노력 끝에 전북불청에 9개지회가 재창립되거나 조직재건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불청회장 재임 중에는 '현장 중심의 행동하는 불청인'을 신조로 매년 여름과 겨울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또, 불교청년회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환경보호 운동을 겸한 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제17차 전국 불교청년대회를 금산사에서 개최해 불청인들 사이에 가장 모범적인 불청대회로 기억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고정관 실장은 늘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왔다. 금산사에서 개최되는 경로잔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무료경로식당 등의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종교편

향 감시활동에도 나서 김제시청에서 열리는 타종교 조찬기도회를 청년회들과 함께 몸으로 막아내기도 했다.

전북지역 불교계에 헌신한 그의 공로는 1999년에는 불청대상을 수상하고 2000년에는 금산사 포교대상을 수상케 했다. 고실장은 현재 종합학교인 동국대 사대부속 금산중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불교학생회 활동에 행정적 지원은 물론 물심양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청년불교가 활발해야 한국 불교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지역활동가들을 결집해 전북지역 불교를 활성화시킬 조직을 구성 중입니다.”

전북 청소년불교가 답보상태에 머무는 지금, 어려운 포교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전북지역 불교계에 새바람을 불어 일으키겠다고 다짐하는 고정관 실장의 얼굴에서 굳은 결의와 신심을 엿볼 수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2009' 일봉법왕 문도의 날 대축제

삼보에 귀의 하옵고! 일봉법왕 문도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아래와 같이 일봉법왕 문도의날을 기념하여 일봉조사전 기공식과 함께 일봉법왕 문도의 날 기념행사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10월 10일 (오전 11시 부터) ■ 장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법왕청  
1부 - 일봉조사전 기공식 및 일봉법왕 일대기 출판기념회 / 2부 - 법요식 및 시상식, 가수초청 공연

### ※ 참고사항

- 일봉법왕큰스님으로부터 건강 및 수계를 받으신 스님, 법사(문, 형제 및 손상좌 포함)님들께서는 이메일wbstf@yahoo.co.kr 또는 02)3216-3216으로 주소, 성명, 법명, 수계년도 등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왕청 제2담화정사에 건립 예정인 일봉 조사전에 문도님들의 이름과 법명을 동판에 새겨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큰스님의 저서나 사진, 비디오테이프 및 큰스님과 인연이 있는 물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저희 일봉법왕문도회 02)3417-1010으로 기증해 주시면 특수 제작하여 큰스님의 조사전에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 02)3217-3217 우 110-846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76번지 귀빈빌딩 5층  
일 봉 법 왕 문 도 회 ☎ 02)3417-1010